

조코비치, 메이저 최다 '23회' 우승



▲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는 조코비치. 사진=연합뉴스

노박 조코비치(36, 세르비아)가 최다 메이저 타이틀 보유자로 우뚝 섰다.

12일 'OSEN'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전날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4위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를 3-0(7-6(7-1), 6-3, 7-5)으로 꺾었다.

이로써 3번째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23번째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달성했다. 종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보유했던 22회 우승을 뛰어넘은 것이다. 나달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US오픈에는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윌블던과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쓸어 담았다.

또 1987년 5월 22일생인 조코비치는 이날 만 36세 20일의 나이로 우승. 남녀 단식을 통틀어 프랑스오픈 최고령 우승자로 기록됐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나달이 우승하며 세운 만 36세 2일이었다.

한편 준우승을 차지한 루드는 조코비치와 상대 전적에서 5전 전패를 기록. 첫 메이저 타이틀 달성에 실패했다. 10승을 거두고 있는 루드는 프랑스로 오픈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US오픈에서도 준우승하며 메이저 타이틀 획득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류현진 재기 불투명 ... 선발 영입 필요”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이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에 선발 투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고 재활 중인 류현진(36·토론토)이 재기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포츠넷은 전날 "류현진과 알렉 마노아가 복귀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토론토 구단에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급 선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류현진과 마노아가 준비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버텨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지난달 불펜 투구를 소화하며 순조로운 재활을 알렸다. 이달 중 타자를 세워두고 공을 던지는 라이브 피칭과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등을 거칠 예정이다.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중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코치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투구 중인 류현진. 사진=facebook(토론토 블루 제이)

토론토는 에이스 마노아가 예상치 못한 부진에 시달리면서 선발진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6승 7패 평균자책점 2.24로 활약한 마노아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1승 7패 평균자책점 6.36에 그쳤고, 최근 재활 시설로 내려가 문제점을 수정하고 있다.

덴버, NBA 첫 우승 ... 요키치, 파이널 MVP

미국프로농구(NBA) 덴버 너기츠가 마이애미 히트를 물리치고 창단 56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에 올랐다.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덴버는 전날 콜로라도주 덴버의 볼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마이애미를 94-89로 눌렀다. 시리즈 전적 4승1패를 거둔 덴버는 1967년 창단한 뒤 56년 만에 NBA 챔피언에 올랐다. 아메리칸농구협회(ABA) 소속팀으로 창단해 1976년부터 NBA에서 경쟁한 덴버는 올 시즌에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고, 우승까지 이뤄냈다.

이날 28점·1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경기 후반 역전에 앞장선 요키치는 5경기 평균 30.2점, 14리바운드, 7.2어시스트의 빼어난 활약을 펼쳐 11명의 투표자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됐다. 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요키치는 올 시즌에는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에 밀려 이



▲ 2022-2023 NBA 파이널 최우수선수를 수상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니콜라 요키치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상을 받지는 못했으나 생애 첫 챔피언 우승을 일궈내며 마지막에 웃었다.

요키치는 우승 뒤 인터뷰에서 "좋다. 일은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며 덩달히 소감을 밝혔다.

'8번 시드의 돌풍'을 일으키며 챔피언전에 올라온 마이애미는 통산 4번째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